

자료제공: 8월 9일(수)

이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관광체육국 관광정책과

미래한강본부 총무무

문화본부 문화정책과

관광정책과장
(트레킹)

조성호

2133-2805

총무부장
(한강 공연)

임재근

3780-0706

문화정책과장
(광화문 공연)

전재명

2133-2510

사진 없음 사진 있음 쪽수: 3쪽

서울시, 9일 도심 곳곳에서 잼버리대원 참여 행사·남산트레킹 문화공연 등

- (남산둘레길트레킹) 남산한옥마을~남산타워, 대원 200명 스카우트 정신 키워
- (서울댄스나이트) 한강(9일 19시), 광화문(9~10일, 19시)···디제잉, 댄스, 힙합&재즈 공연
- DDP서 뷰티·패션브랜드 체험, e스포츠경기장 견학도 오늘부터 진행(서울산업진흥원)
- 안전한 서울 문화체험이 우선, 유관기관 협력해 밀집예방 및 교통 관리 등 철저

남은 일정을 서울과 수도권 등지에서 소화하는 세계 각국의 잼버리 대원들을 위해 서울시가 잼버리 본래 취지인 도전·개척정신을 키우고 문화 교류와 화합의 스카우트 정신을 새길 수 있는 맞춤형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오늘(9일)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.

또 K-뮤직과 K-댄스 등을 몸으로 직접 느낄 수 있는 흥겨운 공연도 한강과 광화문에서 개최해 대원들간 어울릴 수 있는 자리도 마련했다.

- 먼저, 대원들이 단체로 참여해 자연 속에서 체력을 단련하고 건강한 정신을 키울 수 있는 ‘남산둘레길 트레킹’이 오늘부터 진행된다. 오늘은 200명의 대원이 18시부터 2시간 동안 남산한옥마을 광장을 출발해 남산타워까지 이어지는 코스를 걷는다.
- 12일(토)부터 15일(화)까지는 9시/18시 1일 2회 진행되며, 회당 1천 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. 서울시가 제공한 숙소에 파견된 운영지원단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.
- 서울식물원에도 오늘 오후 4개국(미국, 영국, 핀란드, 몰디브) 380여 명의 잼버리 단원들이 방문해 온실, 씨앗도서관, 식물도서관 등을 관람할 예정이다. ※ 행사종료 후 사진 자료 제공
- 잼버리 대원들에게 흥겨운 시간을 선사할 공연 〈웰컴 투 서울 댄스나이트〉가 광화문(9일~10일)과 한강(9일)에서 각각 열린다.
- (광화문) 광화문광장 놀이마당 및 특설무대에서 언어의 장벽 없이 흥겨운 EDM(전자 음악)과 전통 퓨전 춤을 통해 ‘문화’로 하나 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.
 - (9일 19시~21시) ‘디스코 익스피리언스’ DJ공연
 - (10일 19시~20시 30분) 안은미 댄스컴퍼니 공연
- (한강) 여의도 한강공원 물빛무대에서 오늘 19시부터 열리는 공연은 디제잉, 비보잉, 힙합, 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만날 수 있다. 5천석 규모로 서울시민, 잼버리 참가자 등 누구나 관람가능하다.

- (1부)EDM 디제잉&댄스(사일런트 DJ팀) (2부)비보잉(갬블러크루)
(3부)K-POP, K-재즈-힙합(나겸, 웅산밴드, MC스나이퍼)
- 시는 잼버리 대원들에게 매력적인 한강과 도심에서 잊지 못할 추억의 밤을 선사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도 신나는 한여름 밤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특별 공연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.
- 특히 두 공연 모두 많은 인파가 모일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인원을 배치해 현장을 관리하고 상황발생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이외에도 서울경제진흥원(SBA)도 9일(수)~11일(금) DDP에서 서울 뷰티·패션 브랜드 체험을 통해 최신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는 전시 투어(1시간)를 마련했다. 13시~20시에 운영되며 영어 도슨트 투어로 진행된다. 영상·음향·음악스튜디오, e스포츠경기장으로 구성된 에스플렉스센터 견학도 9일(수)~10일(목) 11시~16시에 운영된다.
- 한편 시는 오늘부터 대원들의 본격적인 서울문화체험이 진행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고 밝혔다. 시, 경찰청, 소방재난본부, 구청 등과 협력해 관리 체계를 갖추고,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종합안내소 확대 운영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한다.
- 서울시 관계자는 “남은 잼버리 기간 동안 스카우트 정신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도전·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더불어 서울의 매력과 문화를 만끽할 수 있는 공연 등 즐길 거리도 다양하게 운영할 계획”이라며 “많은 대원이 모이는 장소는 교통안전과 밀집예방 등을 각별히 신경써 안전한 서울 문화체험을 돕겠다”고 말했다.